東大新聞

發行人 金東益
編輯人 南都泳
主幹 宋藝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㉔3130~9
本社直通 ㉔8498

每週 日曜日 發行

今週一言

허물이 있거든 곧 참회하고 잘못은 곧 부끄럽게 생각하라
<선가귀감>

學生會選擧 막바지에

10일 單大會長, 11일 代議員선거

立候補者 등록 마감

總會長은 12일 代議員총회서

평균 2對1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후2시로 單大회장직 및 대학생회장 입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 여학생회와 7개단과대학에서 모두 18명이 등록 평균 2·3對1의 경합을 보였다.

이들 입후보자들은 10일 각대학별로 실시될 소견발표와 잇따른 투표에서 當落을 겨루게 될 것인데, 여학생회장 선거는 중복과 혼란을 막기 위해 총의의 계획을 변경하여 하루 앞당겨 9일에 실시하게된다.

거진웬표에 따라 대학별로 별도 指定장소에서 소견발표를 갖고 이어 11~오후5時사이에 투표를 실시, 그날밤 9時내에 개표를 완료할 것인데 개표장소는 중앙도로 계획하고 있다.

選管委는 의미 발표된선거 결과를 10일 오전 11~11時사이에 대학별로 별도 指定장소에서 소견발표를 갖고 이어 11~오후5時사이에 투표를 실시, 그날밤 9時내에 개표를 완료할 것인데 개표장소는 중앙도로 계획하고 있다.

또 8·9일 양일간에 각 科 대의원등록을 마감하여 11일 대의원선거를 실시, 그날 중으로 신고식및 임명장 수여식을 거행하는 한편 10일의 선거결과 선출된 각단과 대학회장에 限한 총학생회장 입후보등록을 11일 하루동안 접수, 12일 신임 대의원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그회의석상에서 총회장및 부회장의 소견발표를 갖고 총학생회장 선거(투표및 개표)를 실시한다.

한편 7일 등록을 마친 입후보자들은 오후3시 選管委무실(C201)에서 입후보자 전원을 총집합시켜 학생들의 면전에서 연장으로 선거에 임하도록 당부했다. 등록된 입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佛敎大=①김용덕(印·3), ②안동규(佛·3), ③김종남(史·3), ④중영일(國·3)
◇經商大=①이덕구(商·3), ②남기일(營·3)
◇法政大=①김수철(政外·3), ②권용기(法·3), ③김양호(法·3)
◇成均大=①김재원(法·3), ②권창중(노동경3)
◇工大=①조석규(水工3), ②권선도(食·3), ③장태룡(建·3)
◇師範大=①김사성(國敎·2), ②김용화(科敎·2)
◇女學生會=①김옥빈(統·3), ②김경남(國·3)

대학별 투표장(先과 소견발표장소(後)는 다음과 같다. 팔호안은 투개표에 관할할 선거지도위원.

◇불교대=B207(南선우·張淳億) C203
◇문리대=선부도장(張奬基·金大健) 선부도장 ◇법경대=B206 ◇경상대=B209(軍均澤·朴在愚) 중강당 ◇농림대=A106(金豪·李根鎬) A107 ◇공과대=E623(金昌泰·姜昌浩) 工大전용옥상 ◇사범대=F108(鄭敏世·張用話) F218 ◇역학생회=C309(鄭玉鎬·尹乙順) C309

21일 月曜法會 理事長說法

교양학부에서는 금학기에 들어 처음으로 「월요법회」를 오는 21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21일 오전 9시부터 열릴 이달의 월요법회에서는 불교대학 敎授 및 講師 하고 돌아온 蔡이사장도 참석하는데 강단회에서는 ① 일는 불교대학에서의 교과목내용 및 시설을 본교의 경우와 비교검토, ②불교대학의 현황등도 소개하게된다.

佛大교수 懇談會

10日 理事長室서 개최

본교 이사장 채벽암스님의 「人間과 종교」라는 설법이 있게되며 日本 불교대학의 현황등도 소개하게된다.

총장실에서 입후보자들이 입후보 선서를 하고있다

梁博士에 무궁화章수여

徐·趙 두교수엔 동백章

지난 8월15일 광복25주년 기념식전에서 文敎大 梁柱東博士는 朴大統領으로부터 영예의 국민훈장 무궁화章을 수령하고 徐廷柱·趙演鉉교수는 각각 동백章을 받았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사회·문화·산업부에서 크게 공헌한 인사 4백2명에게 영예의 훈장을 수여하였다.

梁박사는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대열에 참여하여 사회발전과 국민복지향상에 이바지한 바 커」 이날의영광을 누렸다.

학술원 회원인 梁박사는 이미 63년 8·15기념식전에서도 학술계에 종사하여 국가사회에의 공헌이 현저함에 따라 文化훈장 대통령章을 수령한바 있다.

在美東大後援會총회

會長에 「리이드·헤드」博士

리이드·헤드 박사

69년도 본교와 아이오와대학이 자매결연을 맺을 당시 在美동대 동문및 인사들사이에 구성된바있는 「在美東大후원재단」은 지난6월9일 「와싱톤」에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초대회장에 「리이드·헤드」박사를 선출했다.

아이오와大學과 본교와의 교수및 학생교환문제를 비롯한 학문연구에 필요한 지원으로 모교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발족된 동대후원회는 이로써 그 면모를 새롭게하게 되었다.

이번에 선출된 「리이드·헤드」박사는 지난해 8월 「보이드」아이오와大學총장과 함께 來校하여 본교로부터 명예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바있으며 후원재단설립에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그는 아이오와大學과 본교와의 교수및 학생교환문제에 관한 첫 책임자이며 이사업을 위해서 1만달러를 지출했다.

「리이드·헤드」회장은 내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기위해 오는가을 본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學點訂正신청

교무과서 받어

교무과에서는 70학년도제1학기 성적표에 기재된 성적에 異議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들의 정정사무를 14일까지취급한다고발표했다. 성적정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기간내에 신청을해야하며 교양학부생들도 교무과에서 정정하면 된다.

추가등록기간

21~26일까지로

경리과에서는 추가등록기간을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 아직 등록을 못한 학생은 이기간중에 전부 등록해주도록 요망했다.

이번 학기부터는 학교방침에따라 제2차 등록기간이 최종등록이 된다.

李載昌교수 渡美

李載昌교수

妹姉校「아이오아」大學에

본교와 자매결연을한 美國「아이오와」대학과의 교수및 학생교환계획이 在美東大후원재단의 지원으로 실현되어 불교대 李載昌교수가 9월 계획의 첫 渡美했다. 케이스로 「아이오와」대학과의 교수 및 학생교환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금학생들도 「아이오아」대학으로 가게될 것이다. 李교수는 1년간 머무르면서 「아이오와」대학에서 비교종교학과에서 연구활동을 하게된다.

김철博士 귀국

스웨덴서研究마쳐

지난 9월 초 「스웨덴」도立「스톡홀름」大學에서 「방사선이 유기물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金철(27선) 동문이 지난 6월 귀국, 7월 金昌湜공대학장을 예방했다.

65년 농림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한 김동문은 韓西학과금으로 유학, 「스웨덴」웨테부론」식품보존연구소에서 연구를 마치고 「스톡홀름」大學 생화학부 방사성생물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친후 학위를 수령하고 귀국한 것이다.

談 李廷植교수

<法政大 부교수>

공명선거에의 意志

自由를 보장하기 위하여 民主秩序에 의한 선거가 있는 곳에서 는 人間의 人間의 대접을 받을 수 있은 것이다.

大學의 自由및 大學의 선거도 결코 例外는 아니다. 단순한 大學의 自由가 아니라, 統一性있는 大學의 自由가 무엇인가 는 소중한 것이다. 또 統一性있는 大學의 自由를 앞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追求하지않는 大學人에게는 왜 大學의 自由가 소중한가를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大學에 自治가 있고, 大學의 自由가 있는 것은 大學人이 大學人 스스로의 自由를 얻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大學의 선거는 大學의 自由를 확보하는 權利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선거에 있어서 民主秩序 즉 公明性을 지키지 선거에 의한 參政의 만선인 것과 같이 大學의 選擧秩序를 유지하지 못한 정도로 치욕적인 것은 없다. 지난 5월學生 內選擧가 부르짖어 갔에 따라 選擧秩序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에는 「東國大學校가 우리의 社會로부터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아 안타깝부터 것은 우리 東國의 大學人이 이 소중함을 소홀했다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과오를 저지른 것이 우리는 온갖 노력을 기우려 그 치욕을 씻으려고 하고 있다. 이 후 우리는 온갖 노력을 기우려 그 公明하게 치루어냄으로 大學人의 自由를 향락할 것이다. 「利」가 있다는 것을 과시할 필요가있음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다.

「國倫」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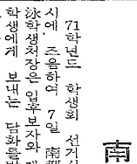
李학장참석

문교부 주관으로 國民倫理 담당 敎·講師 세미나가 지난3일부터 5일까지 연세대에서 열렸는데 본교에서는 法大학장 李鍾鶴박사를 비롯 權九燕·金仁鴻·洪淳鉉·申基珍교수등이 참석했다.

국민윤리는 문교부령에 의해 이번학기부터 교양학부 학생들의 필수과목으로 이수하게 되어있다.

選擧管理委구성

위원장에 하현순군



하 현 순군

지난 4일 소집에서 소집된 대의원총회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될 71학년도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하현순(林4)군을 선출하고 위원은 각단과대학및 여학생회에서 각각 대의원2명으로 위촉했다.

그동안 성원미달로 流會를 거듭해오던 대의원회는 이날 대의원은 85명이 참석, (재적원 135명)의 의장 尹得洙(經4)군의 사회로 개회되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생활지도 위원장 金炫東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새로운 기풍으로 모범적인 학생회·운영」을 당부했다.

이날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 總總에 이어 오후 6시 학생처장실에서 첫 會議를 갖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C201로 결정하여 본격적인 선거사무에 돌입했다.

위원장에 선임된 하현순군은 「명랑·공정한 학원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각 선거관리 위원 명단을 배분등 비위사실을 적극 단속할 것이며 이러한 자발적인 참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본교 71학년도 학생회 선거실시에 즈음하여 7일 南都泳 학생처장은 입후보자와 재학생에게 보내는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학원선거는 학업의 연장이다.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다하자.

②선거에 있어 당파심을 초월하여 학원의 평화를 지켜 밝고 명랑한선거를 조성토록 하기 바란다.

③정경당당한 선거를 위해 일부 날뛰, 유행의 災를 거두도록 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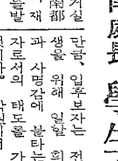
④또 모든 선거에 임하여 지성을 백 번선거에 임하여 지성을 백번 날뛰, 유행의 災를 거두도록 하기 바란다.

⑤만일 선거법을 위반한다거나 질서를 문란케하는등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방침이다.

"選擧는 學業의 延長"

참신한 風土조성을"

南處長 學生會選擧에 談



南處長

本위원회는 以大회장인수 및 등록이 실시되는 7일부터 총학생회장 선출이 끝나고 각학과 학회장선출이 끝날때까지 존속하게된다.

7일부터 정식활동에 들어간 선거관리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하현순(林·4)
▲佛敎大=이원도(佛·2)
▲文理大=이선록(사교·2)
▲法政大=조재연(行政·2) 안성원(政外·2)
▲師範大=최영범(敎·2) 김덕근(倉·1)
▲成大=하현순(林·4) 한호남(응생·2)
▲工科大=이승록(전자·2) 윤종일(위공·2) 이필근(섬·1)
▲醫大=전경(醫敎·2)
▲農大=김경(回·4) 이상배(統·2) 이근순(國·2)
▲法政大=조재연(行政·2) 안성원(政外·2)
▲師範大=최영범(敎·2) 김덕근(倉·1)
▲成大=하현순(林·4) 한호남(응생·2)
▲工科大=이승록(전자·2) 윤종일(위공·2) 이필근(섬·1)
▲醫大=전경(醫敎·2)
▲農大=김경(回·4) 이상배(統·2) 이근순(國·2)
▲文理大=이선록(사교·2)

代議員총회

지난 4일 소집에서 소집된 대의원총회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될 71학년도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하현순(林4)군을 선출하고 위원은 각단과대학및 여학생회에서 각각 대의원2명으로 위촉했다.

그동안 성원미달로 流會를 거듭해오던 대의원회는 이날 대의원은 85명이 참석, (재적원 135명)의 의장 尹得洙(經4)군의 사회로 개회되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생활지도위원장 金炫東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새로운 기풍으로 모범적인 학생회·운영」을 당부했다.

이날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 總總에 이어 오후 6시 학생처장실에서 첫 會議를 갖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C한

沈군등入賞

大學文藝사진부문

본교 「포스사진크럽」회장 沈충원(경제·4)군의 「線의妙」외 4명의 회원작품 6점이 지난 5일 발표된 제1회 전국대학 문화예술축전 사진부문에서 입상했다.

이번에 입상한 「동대 사진크럽」주멤버들은 지난 5월 축제때에는 「새한쌍둥」에서 사진전을 개최하여 사진동호인들의 관심을 모은 바있는데 이번 첫출품에서 좋은 성과를 올린것이다.

입선자와 작품명은 다음과 같다.

▲沈충원(경제·4)—「線의妙」 ▲신세규(국·4)—「佛界」 ▲백광규(농경·4)—「군번」 ▲이춘란(식광·2)—「生命의 탈구」

「포드」장학회發足

회장에李正煥동문

후배양성과 모교발전에 기여할것을 목적으로 본교 FOD(Focus Of Dongguk Economics)회 출신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포드」회장학회를결성, 지난7월11일 발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이정환(62년도 경제과졸) 동문을 선출했다.

「장학회 결성에 따라 「포드」장학회에서는 현재 5개년계획으로 기금 2백5십만원을 모금상이다. 「포드」에서는 목표액의 기금을 확보하게될 회원(전회원 75년도 이후부터는 회원 53명)이 기금의 이자로서 장학금 지급을 맡을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회원육성에 고무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포드」장학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李正煥(62년 경제과졸) ▲감사 田敏水(62년 경제과졸) ▲상임이사 曺福(63년 경제과졸)

科敎科주임에 이일규교수

空席中인 師範大學 과학교육과 주임교수에 文理大 化學科 이일규교수가 지난 3일 임명되었다.

前 주임교수인 車鎭燮교수는 지난 8월31일 「브리감·영」대학의 초청교수로 渡英, 이와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佛敎大 「人間과 종교」

채벽암스님 설법

불교대학 敎授 및 講師 채벽암스님의 「人間과 종교」 설법이 지난 8일 오후4시 이 사상실에서 열린데 이어 이 자리에서는 최근 일본 불교계 및 各대학을 시찰한 한 불교대학의 현황등도 소개하게된다.

보리수

사색의 계절이다. 해맑은 가을하늘은 수정과같은 맑은 마음이 고이고 싶은 계절이다. 그런데 우리 학교교정에서 뜻은 한결 더 영글하여 내일을 살찌우게한 가을이다. 온힘을 가을을수확의 시기라 한다. 들에 식이 황금물결 가을녹음 소리가 푸르고 밤이 익는 고삭에는 알곡을 거둔 풍요에 사로 잠긴 농촌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러한 때 문무가 즐겁다. 가을은 소슬한 바람과 외로운 달밤이 있다 지난 공부하는 사람은 촛불의 심지를 높세워 고전의 향기를 만끽함도 가을이 안겨주는 보람이다.

바람

호처럼 역세계에 불면 양 뜨거운 당하는 피해는고 흑에서 작렬 등 사하고 새로운 반복과 〈과 기령투표의 찬성이고, 이어 용할수록 학교 작법은 구두호청제가 아 이 바람은 조용하면 조 학생자신에게 할다운 수 〉이 되는 〈삼태의 바람〉 다운 민주주의의 방법을 로작법(顯露作法) 이 그 것이다. 운발작법이란 쓴것이다. 이것을 율장 이와같은 선거바람이나 고대 부최 法)이라하고있다. 당시 세시에도 있은 것 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서는 단 한가지의 흑면 있어도 안되었다는 만장일치 을 얻을수있는 만장일치 의 제도를 쓰는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발표 된 민주의회시대에 살고 있지만 옛스런 작법을 주 의하여 공부하고 사색하 면서 행동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가을바람보다 앞서 불어온 학원의 선거바람에 대하여 학생스스로가 참 다운 진리의 구도자로서 바람벽이 된다면 무리와 낭비의 태풍은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洪庭植>

輸出入 業界의 幹部社員 公務員·銀行員·一般知識人 軍人·學生들을 위한 必携書

最新 英文書翰大典

本書의 主要目次

PART I. 英文書翰의 作成要領
PART II. 社交文(Social Letters)
PART III. 私信(Personal Letters)
PART IV. 펜 팔(Pen Pal)
PART V. 公用文(Official Letters)
PART VI. 商業通信文(Business Letters)
PART VII. 電報·TELEX
APPENDIX I. 各種書式作成
APPENDIX II. 韓英書翰文 表現辭典
APPENDIX III. 英文書翰 用例辭典

값 7,000원 4개월月賦

時事英語社 注文処 (24) 2974-5

英文學生의 雜誌 一時事英語硏究 English is a tool of success.

RICHARD E. KIM의 第三作
英文版·國文版 절찬리에 同時発売中! 大学副教材로 最適!

Lost Names

金恩國作 / 都正一註解 / 高級洋裝 / 값 700원

＊国内外의 書評抄＊

■ 이것은 종오의 詩가 아니라 사랑의 詩다. 리리시즘이 흐르는 참으로 아름다운 작품이다. / New York Times
■ 아시아 두 文化圈의 갈등을 들여다 본 매혹적인 통찰이다. / Newsweek
■ 긍정의 文学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時代에 경종을 울림, 참다운 뜻에서의 良書다. / Look
■ 프랑소아 모리아끄의 自傳小說을 생각나게하는 놀랍고 심기일 自己 記錄이다. / Denver Post
■ 리차드 김은 그의 과거를 생동하는 필치로 엮을 줄 아는 훤연난 作家다. / Boston Sunday Globe
■ 도데의 마지막 수업을 연상시키는 작자의 절제된 묘사는 殉敎者와 審判者에서 보이는 고뇌의 狂気를 순화시키며 신비스럽 共感을 불러 일으킨다. / 東亜日報
■ 소년의 視点을 통한 開眼小說的 手法을 쓸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소설기법에 도전. / 朝鮮日報
■ 「殉敎者」와 「審判者」로 이미 美国文壇에서 「베스트·셀러」作家의 명성을 떨친 金恩國氏는 이번에 「빼앗긴 이름」으로 더욱 확고한 위치를 확보 / 中央日報

빼앗긴 이름

金恩國作 / 都正一 譯 / 高級洋裝 / 값 600원

全国 BEST SELLER 계속 第一位!
中央日報 및 各週間誌조사

二大前作 英文小說

THE MARTYRED
「殉敎者」영어原文版 값 700원

THE INNOCENT
「審判者」영어原文版 값 1000원

全国 大学에서 就職特講教材로 一斉採択中

就職特講大学教材
就職英語問題集
＊1967~70年 100個企業体問題収録＊

■ 1967年에서 '70年까지 銀行·言論界 国営 및 私企業体에서 시행한 最新 就職英語問題를 모아 大學就職英語班에서 教材로 사용할수 있도록 解答없이 간단한〈힌트〉만 준 講義資料!

時事英語社 編輯局 編 / 값 700원

에스카레이타式綜合研究
就職英語세미나
＊出題類型別研究3000項＊

■ 全国 200余 主要企業体와 機関에서 出題했던 3,000余 問題들을 問題類型別로 分類하여 연구해설·해답을 붙인 就職英語의 決定的 自習書!

時事英語社 編輯局 編 / 값 800원

全国有名書店発売中

채택문의처: ㉔ 2972~3 時事英語社

KBS 710KC (제1방송) 放送英語教材

현재 第2卷 講義中
海外旅行英語會話
●時事英語社 編輯局編·값 550원·全國有名書店発売中●

▶담당강사⇨李鍾世, ⇨Mrs. Janet McClure
▶방송시간⇨매일오전 6:10~20

生活実務 英語会話 全七卷
3.6版 1,632面 / 값 4,000원 4개월 월부
注文処 ㉔ 2974~5 時事英語社

各單大會長입후보 紙上所見發表

1971年度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오는 10일로 박두한 각 단과대 회장선거를 피크로 그 막을 올리게 되었다. 선거법개정으로 금번 單大회장 선거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전초전으로 주목을 끈다. 8개單大(여학생회포함) 회장 입후보자 18명의 紙上 所見발표를 싣는다. <편집자>

農林大

권리와 이익위해 싸울터

기호 1
김 재 원
<農學科·3>

18년의 전통속에 자라온 우리 농림대학은 너와 내가 아닌 농학도로서 뭉쳐진 동족인이다. 18년의 긴 세월동안 우리의 주위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수박 결혼기념의 실험실문제, 도덕공부를 하고있는 영어특강, 실험실습비의 사용문제, 부속농장과 연습림 농림회지 또한 타 대학에는 법용대다 국문학회다 법학회다 하는 모임체들 이러한 것이 어찌되었나를 생각해 보라. 여러분께 분명히 말하겠다. 너와 내가 아닌 농학도로서 뭉쳐서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이 희생이 된다해도 후회의 두려움없이 여러분과 같이 투쟁할것을 굳게 약속한다.

◇1947年 수원 農林고교 졸업
◇수원 농림고 출업

"농대의 새로운면 추구"

기호 2
권 창 송
<農經科·3>

이번 선거에 나서게 된것은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내 주위의 여러 벗들의 이해와 성원, 그리고 보살핌이 없었다면 나의 굳은 신념과 결단력을 보일 수 없었다.

분명히 지면을 통해서도 말하고 싶은것은 "실천" 하지도 못하는 선거공약, 신빙성도 없는 선거 공약을 말하지 않을 것이 선거공약으로 하고 그동안 학교 생활 속에서 익힌 체험을 충분히 발휘하여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만 있는 일들을 조심스럽게, 신속하게 처리 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러므로써 농대의 새로운 면을 여러학형들께 보여드리고 싶을 뿐이다.

저의 이러한 결심과 신념을 학형들, 스스로의 손으로 길러 주시길 빈다.

◇1949年 서울 出生
◇農經科 代議員
◇우등장학생

학구 분위기 조성에 努力

기호 1
김 용 택
<印哲科·3>

1. 불교대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롭고도 효과적인 교과과정의 재편성을 촉진한다.
2. 특강 및 세미나를 통한 학구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3. 기존 장학금의에 장학금의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4. 저업보도에 의한 졸업후 진로의 개척을 위해 노력한다.
5. 각과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기회를 부여한다.
6. 교수와 학생간의 진실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한다.

◇1944년 경북 울진 出生
◇울진고교 졸업
◇圓光 학생회장

이미지 쇄신에 총력을

기호 2
안 동 규
<佛敎科·3>

불교정신을 전학이념으로 하는 동국의 수석단과대 佛大회장에 일후보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채 얼마전만도 그해 전학년에 횡행하고 있음을 보아왔다.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우리 佛大生 누구나 조금씩은 있다. 對內적으로 그것은 佛敎大의 이미지가 부각되지 못한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총회장단에서 헌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불교대의 이미지 쇄신에 우선 총력을 경주하겠다.

이미지 쇄신의 方法論은 佛大生 전체에 천명시켜, 불교대와 학생을 고르게 전파하여 육성하겠다. 佛國의 전통이 더욱 빛나게 발휘될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 모색하겠다.

◇1949年 경북 出生
◇불교대구 농인고교 학생회장
◇불교과 대의원 장학생

師範大

"大學發展위해 분골쇄신"

기호 1
김 사 성
<國敎科·2>

삼보의 언덕을 으르내리지 만 1년이 넘은 듯싶다.

그동안 느낀 바도 많았고 들은 바도 많았다. 우리의 모교와 우리 대학을 위하여 일해 보겠다는 신념이 뜨한 그 신념의 실현이 이리 어려운 일인줄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나 선거일을 며칠 앞둔 나의 심정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설마 나의 마음가짐과 내재된 정열이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을진대 어찌 내게 임무를 우리 학교나 학우들이 맡기지 아니하겠는가?

나는 오로지 선거를 통하여 학생들의 의사를 묻고 그의사대로 사범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행사가 마련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면 이제 시원하기 않으랴. 다만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뿐이다.

◇1950年 충북 음성 出生
◇廣惠院 고교 졸업

"師大 빛내기에 최선 다할터"

기호 2
김 응 화
<科敎科·2>

내가 본교 사대에 입학 당시부터 우리사범대는 촌창기였기 때문에 서 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여 모든 부문에 서 이해와 성원, 그리고 보살핌이 없었다면 나의 분명히 지면을 통해서도 말하고 싶은것은 "실천" 하지도 못하는 선거공약, 신빙성도 없는 선거 공약을 말하지 않을 것이 선거공약으로 하고 그동안 학교 생활 속에서 익힌 체험을 충분히 발휘하여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만 있는 일들을 조심스럽게, 신속하게 처리 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러므로써 농대의 새로운 면을 여러학형들께 보여드리고 싶을 뿐이다.

저의 이러한 결심과 신념을 학형들, 스스로의 손으로 길러 주시길 빈다.

◇1949年 서울 出生
◇農經科 代議員
◇우등장학생

우리의 힘으로 建設을

기호 1
조 석 규
<水工科·3>

찬신한 대학생활을 하려면 한갓 배움을 덕부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좋더 희망있고 알찬 삶을 영위해야 되겠다. 우리가 살다는 것은 젊음이 있다는 것이요 젊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공과대학이 태어난지도 어언간 4년의 연륜이 흐르고 이제는 우리힘으로 건설해야 되겠다. 사람사회에 눈이 어두워 명예와만 채우는 어리석음 때문에 위축된 공과대학에 한번 희망을 불어 넣어야 되겠다.

한갓 강연이설로 자기의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보다는 공과대학을 위해서라면 피를 흘리며 희생할수 있는 참신한 일꾼을 선출해야 되겠다.

군자는 말보다 실천을 중요시한다. 당선의 감투질에서 실천에 옮길수있는 성실하고 든든한 참된 일꾼을 뽑자.

◇1948 전북 김제 出生
◇이리 공고 졸업
◇圓光 학생 회장

"윤활유 구실에 최선의 努力"

기호 2
권 선 도
<食工科·3>

가을에 접어들면서 선거 열풍은 더욱 뜨거워지는가 보다. 대학은 지성의 전당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생회 잔부 선거만은 예외 같다. 이미 비난의 대상이 되어온지 오래다. 난 이런 비난의 소리를 청춘의 소리로 튀겨어 보려 한다.

먼저 대학선거의 모범적인 선거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다짐해 본다.

학교는 훌륭한 교수진과 운영자인 학교당국, 그리고 주인공이 될 학생, 이세가지 요소가 삼위일체 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중 학생회 잔부는 학교 당국과 교수진과 그리고 학생사이의 윤활유가 되어야만 된다. 중은 윤활유는 기계가 마멸되지 않게 하는것이다. 보다 폭넓은 학생과 교수의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이 진정한 주인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려 한다.

이제 공대가 청춘을 맞는 만큼 학생회장의 활동은 타대학보다 더욱 무거움다고 생각된다.

◇1947年 충남대덕 出生
◇대전 보문고교 졸업

어떠한 희생도 각오 자신

기호 3
강 태 룡
<建工科·3>

우리 공과 대학이 설립된지도 어언 4년. 너무나 미비한책로 연륜만 지니고 있다는것을 본인은 항시 느꼈다. 희망이라면 학교를 위해 어떠한 역경과 난관도 참고 이겨여가는 굳굳한 소신을 가진 사람이기를 기대함을 본인은 잘알고 있다. 앞으로 공대를 위한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후보하게 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나는 내정으로는 지혜를 쌓고 外的으론 奚를 참조하며 공지와 자부심이 충만한 공과대학 학생들이 되길 기원한다.

끝으로 초창기의 공대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일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바란다.

◇1948年충남 서산 出生
◇서령고 졸업
◇건축과 3년간 대의원
◇우등장학생 학우회 회장

工科大

經商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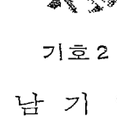
"새로운 이정표 확립努力"

기호 1
이 덕 구
<商學科·3>

본인이 경상대 회장에 출마하여 그동안 나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 주셨던 대의원 제위께 우선 지면을 통해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존경하는 경상대 학형들! 나는 고질화된 학생자치 활동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보겠다는 굳은 신념을 저버릴 수가 없었기에 경상대 학생회장에 일후보 하기전 대의원 제위의 의견을 고취시킬수 있는 주위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또한 대외적인 여학생의 활동으로 전국대학, 교내의 학보교환과 전국여대생들의 심포지움을 열어 소속된 학회와 각 전공학과에 대한 관동을 소개 알린할 것을 다짐할수 있더이 사실의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나의 일후하이며 또한 선배언니들의 전하온 길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우리 동국 여학생회에 밝은 등불이 될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1948년 서울出生
◇中央女高 졸업

"새 역사를 창조하자"



기호 2
남 기 일
<經營科·3>

눈수저 괭개치고 본하기 전에 있는 눈수저 살려고 광 은수저 구해 역자는 것이 소신 이다. 모든 유권자들은 이제 일후보자들의 구슬찰 는식 공약에 지쳐버렸다.

이제 동대는 바른역사 바른 전통을 올게 발굴하여 모든 학생이 빼저린 사명감 속에서 일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어느때 보다도 학생자치기구의 학리적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생들은 생속에서 호흡하는 자치기구가 되지말고 잔부가 되어야 한다.

나하나의 안일과 방관과 좌절은 무한한가 능성을 발견치 못하는 자각없는 소치이다. 학생 잔부들은 내뒤에는 5천여 동국인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 5천여 동국인은 가슴에 불을 붙여 합리적인 실천으로 세역사를 창조하자!

◇1944년 충북 영동出生
◇大田고교 졸업

女學生會

"근본적인 문제 해결부터"

기호 1
임 숙 빈
<통계과·3>

여학생회관에 들리는 여학생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고 본다. 제일 먼저 여학생회에 대한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그러한 참여의식의 결여를 고취시킬수 있는 주위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또한 대외적인 여학생의 활동으로 전국대학, 교내의 학보교환과 전국여대생들의 심포지움을 열어 소속된 학회와 각 전공학과에 대한 관동을 소개 알린할 것을 다짐할수 있더이 사실의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나의 일후하이며 또한 선배언니들의 전하온 길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우리 동국 여학생회에 밝은 등불이 될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1949년 서울出生
◇中央女高 졸업

"誠實로 더부살이 면하는"

기호 2
김 경 남
<國文科·3>

대학 四년간을 개인의 인격 완성에 목표를 두고 지내온 내가 "내가아닌 남"을 위해서 의생적 봉사적인 마음 가짐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현재 우리 여학생들이 (六百여명)이 남녀공학인 동국대학에서 더 부상이의 현실을 면하지못하고 있는 것을 고 견딜수 없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누구나가 동국이면 열원했던 "미스동국" 을 꼭 시도해 보이겠으며 여학생 회관의 확장및 이등, 동대 여학생들의 PR등을 하는데 있어 참되고 성실된 의지와 헌신적이고 봉사적인 사고를 갖고 일한다면 능히 가능할것으로 믿는다. 무엇보다 승요한것은 사람이 없는 마음없이 진심에 일하는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많은 호응을 바랄뿐이다.

◇1949年 경북 영덕 出生
◇영덕여고 졸업
◇圓光 부회장

法政大

"깨끗한 學風 선거로 새風土 이룩하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부터"

기호 1
김 수 철
<政外科·3>

이미 주지될 사실이지만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여 여러 학형들의 거교적 호응과 지지로 당선을 목전에 두었던 나로서는 선거제도의 개편이라는 혹탄선언에 좀 얼떨떨했다.

이제 지난 6개월여간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학형들의 은혜에 보답코자, 또 열렬한 나의 성원의 합성을 외면하거나 회피할수없어 나의 소신의 일단인 "헌신의 역적이 됨으로써 동국사적 대과업인 "동국총동에 내젊음을 殉해 보겠다"면 결의를 더욱 굳히 法政大會長에 입후보하여 동국의 성실한 머슴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1947年 경북 예천 出生
◇대창고교 졸업

"신의와 성실로正義를위해"

기호 2
민 홍 기
<法學科·3>

불의에 굴복했던 지난날 대학선거는 갖은 훼포의 난무로 일관돼왔다.

하나 오늘에 접하여는 대학선거의 새로운 이미지를 찾고 정의에 올바른 일꾼을 찾아야할 전 동국인이 잠망하고 과거에 그릇된 생리에 대항해야 겠기에 본인은 이에 입각하여 허울좋은 혁신적공약을 배타하고 좀더 동국의 올바른 대학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국히 평범하고도 필연적인 결심을 토대로 법정대 회장단에 일후보한다. 아직 정치에 물들지않은 나이기에 허울좋은 공약이 되지않고 영구한 삶보에 광채를 발산시켜보자는 것이다. 이제까지 많은 성원을 보내준 법정인앞에 신의와 성실로써 각자하며 앞으로 계속 정의의 일꾼 민동에게 뜨거운 우원과 배려가 있을때 나는 자나스런 부처님과 법정인에게 나의 모든것을 바치겠다.

◇1947年 서울 출생
◇한성고교 졸업

"「피와땀」다해 새風土를"

기호 3
김 양 호
<法學科·3>

東國人의 불꽃는 使命感과 祖國의 念願인 『實力있는 知性』으로서의 時代的要請에 呼應하면서 後退와 沉滯의 連續인 오늘에 反抗하는 法學徒로서 學生會長에 立候補하였다. 獨善과 虛勢로 病든 東國의 風土를 根本的으로 改革하고 人間性을 尊重하며 眞理探究와 學問硏究를 土台로 우리의 學風을 澄成할 한 知性人 「東國의 리더」로써 學風을 自覺하여야 한다.

우리는 知識의 產室인 大學이, 眞理의 發祥地인 敎授님, 最高의 知性인 大學生이 모두 營利와 利己와 나태의 不協和音속에 不信을 當하는 韓國的인 風土病을 憤慨하며 「되는 일이 없고 안되는 일이 없다」는 生活哲學을 완강히 排擊해야겠다.

東國은 더 많은 「피와 땀과 努力」을 우리 東國人에게 要求하고 있다.

◇1943年 서울出生
◇경기공고 졸업
◇전국웅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50여회수상

文理大

"미진한 부문의 개편을"

기호 1
김 종 남
<史學科·3>

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와 금해에 타협이란 있을수 없다. 내가 숙해있는 文理大의 미진한 여러 부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새롭고 굳치고 싶은 마음에서 文理大 會長에 일후보를한 것이다.

아장 아장 걷고있는 아기 코끼리는 튼튼한 최선봉을 하고 전재해 있기는 하지만 내장은 썩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앓되게 되어 있다. 나는 東國人이며 史學徒다. 극민학교와 중학교때도 自治會長을 해보며 leadership을 길러 왔고 高校때는 유도부장을 하며 신체를 단련도 해보았다. 이것이밑천이 된다면 文理大學兄님들의 말을 귀담아 나의 所信껏 文理大의 부족한점을 시정내지는 수술해볼 생각이다.

나의 용기와 결단을 문리대학 학형들이 여섯 기대해 주기를 바랄뿐이다.

◇1947年 전남 해남 出生
◇광주고교 졸업

"타협아닌 實踐의 자세로"

기호 2
송 영 일
<國文科·3>

문리대회장에 나선 내 개인의 의욕은 東國의 비약적인 미래에 적극참여하고자 하는 여러 학생들의 용기와 나란히 뿌리를 박은 이렇게 나는 침체한 大學의 활동에 기름을 더하고 불을 당기는 전환점의 불씨가 되고자 한다. 그것은 무모한 거부와 불평과 불평가 아닌, 오로지 우량한 석조전을의 성실과 침착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신한 커리큐럼의 연구, 학사행정의 개선, 師弟의 對話를 모색하고, 앞으로 모든 학생들이 사회의 엘리트서의 정보화와 자치활동의 새 一面을 여러학형들과 이루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협과 운페를 용납할수 있을까. 정당한 요구와 實踐의 자세로 오는 륜의 東國, 그 文理大를 위해 보탑있는 새 전 캐넘 것이다.

◇1949년 충남 당진 出生
◇奧國高卒業
◇皿又行仁國民

東大蹴球部

마아크및 유니폼 도안 모집

우리 東國大學校의 象徵獸는 코끼리다. 순하디순한 코끼리지만 일단 성이나면 猛獸로 변한다. 이에 復興을 다짐하는 우리 蹴球部는 성난코끼리를 아로새긴 마아크와 산뜻한 유니폼의 도안을 널리 현상 모집한다. 뜻있는 학우들의 많은 응모가 있기를 바란다.

현상모집 요령

1. 성난 코끼리, 축구볼, 동대등의 3가지가 꼭 표시되어야 함
2. 특징적이고 단조로와야 하며, 유니폼은 자주빛이 바탕이어야함
3.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는 독창적인 도안이어야 함

규격	적당한 치수
현상금	五、000원
마감	一九七0九월三0일
접수	東大新聞社
발표	一九七0년一0월五일

一九七0年 九月 一日
東大新聞

2·3학년 대의원선거 일정표 9월11일(금)실시

대학	학과	학년	교시	시간	강의실
불교대학	불철	2	3·4	11·00~12·50	C 205
		3	2	10·00~10·50	C 201
	인철	2	6	14·10~15·00	C 207
		3	5·6	13·10~15·00	C 203
		2	3·4	11·00~12·50	C 206
		3	3·4	11·00~12·50	C 206
문리과대학	국영	2	2	10·00~10·50	A 213
		3	3·4	11·00~12·50	A 105
		2	5·6	13·10~15·00	A 112
		3	3	11·00~11·50	A 213
	사연영	2	4	12·00~12·50	A 112
		3	1·2	9·00~10·50	A 112
		2	5·6	13·00~15·00	A 214
		3	4	12·00~12·50	소극장
	수물	2	3	11·00~11·50	A 112
		3	2	10·00~10·50	B 307
	화통	2	4·5·6	12·00~15·00	D 209
		3	2	10·00~10·50	B 313
		2	3·4	11·00~12·50	B 308
		3	1·2	9·00~10·50	B 411
		2	3	11·00~11·50	A 112
		3	3·4	11·00~12·50	B 313
법정대학	법	2	6	14·10~15·00	A 220
		3	3	11·00~11·50	A 214
	경행	2	3·4	11·00~12·50	A 220
		3	6	14·10~15·00	A 108
		2	3·4	11·00~12·50	A 108
		3	3	11·00~11·50	A 322
		2	4	12·00~12·50	A 215
		3	3·4	11·00~12·50	A 110
경상대	경제	2	1·2	9·00~10·50	A 107
		3	3	11·00~11·50	A 217

대학	학과	학년	교시	시간	강의실
경상대학	무역	2	5·6	13·10~15·00	제1체육장
		3	3	11·00~12·50	B 205
	경영	2	4	12·00~12·50	B 102
		3	3·4	11·00~11·50	B 205
농림대학	농	2	3	11·00~11·50	B 412
		3	1·2	9·00~10·50	B 416
	임	2	1·4	9·00~12·50	연습림
		3	5·8	13·10~17·00	연습림
	농경	2	2	10·00~10·50	A 327
		3	5·6	13·10~15·00	B 313
	농생	2	3	11·00~11·50	A 328
		3	4	12·00~12·50	C 201
공과대학	전자	2	1·2	9·00~10·50	E 417
		3	1·2	9·00~10·50	E 418
	토목	2	1·2	9·00~10·50	E 623
		3	1·2	9·00~10·50	E 624
	건축	2	3·8	11·00~15·00	E 520
		3	5·8	13·10~15·00	E 519
	화학	2			
		3			
	고분	2	5·6	13·10~15·00	A 322
		3	3·4	11·00~12·50	E 299
	식품	2	3·4	11·00~12·50	A 324
		3	3·4	11·00~12·50	C 204
	전기	2	1·2	9·00~10·50	E 623
		3	1·2	9·10~10·50	E 624
	광경	2	3·4	11·00~12·50	B 314
		3	3·4	11·00~12·50	E 104
사범대학	국교	2	1·2	9·00~10·50	F 110
	사교	2	5·6	13·10~15·00	F 110
	과교	2	5·6	13·10~15·00	F 320
	수교	2	3	11·00~11·50	A 112

1970년 9월 7일
선거관리위원장